

청소년과의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소식지
「2018 하반기 Vol. 14」

마
력
구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Catholic Children & Youth Foundation

인사말_ 故구본영 신부님을 추모하며



故구본영 제랄드 신부님을 처음 만난건 제가 강회 바다의 병정소년수련원에 처음 발행받아간 2005년 12월이었습니다. 겨울선양 학교 동시자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신학생들은 엔트리에 들어온 청소년들을 위해 너무나 열정적으로 워었습니다.

구본영 신부님을 비롯한 신학생들이 마지막 밤 축제 무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멋진 댄스공연을 했고 마지막 앤딩 자세를 취한 그 순간이 제 카메라에 담혔습니다. 바로 위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 친구는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거 같구나' 생각했습니다.

굵은 편법줄을 훌리면서도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 짓는 그 얼굴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미소 짓는 얼굴로 살았습니다. 저는 구본영 신부님이 얼굴을 찡그리거나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긍정적이었고 웃음을 일지 않았습니다. 입관을 하면서 마지막 봉 구본영 신부님은 그 안에서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놀 기뻐하십시오.' (겔림비서 4:4)라는 신부님의 사제수품 성구처럼 기쁘게 살았고, 이제 하나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진정성 있게 청소년을 위한 삶을 성실하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나라를 선물하셨을 것입니다. 함께 이마에 주시고 기도해 주신 후원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핑기는 오래 남는 법일을 구본영 신부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운동 즐기려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남은 사랑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소년을 사랑하고 기쁘게 성실하게 살았던 삶은 우리들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존중을 없이 진정성 있게 청소년을 위한 우리의 소명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2018. 11. 30
(재)기쁨학교청소년재단
사무총장 이재학 안티모 신부



故 구본영(具本營)
제랄드 신부

"주님 안에서 놀 기뻐하십시오." (겔림비서 4:4)

1981. 10. 11	출생
2010. 1. 12	사제수품
2010. 1. 25 ~ 2011. 1. 16	부평4동 성당 보좌 신부
2011. 1. 17 ~ 2013. 1. 13	(재)기쁨학교청소년재단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원장
2013. 1. 14 ~ 2014. 1. 13	인천광역시청소년자활작업장 소장
2014. 1. 14 ~ 2015. 9. 30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2016. 1. 1 ~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수구학교밖지원센터 소장
2018. 9. 12	선종

"진정성 있게 청소년을 위한 삶을 살아오신
구본영 제랄드 신부님,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을
오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 방향성 2018. 12. 14
통합진 2018. 12. 14
통합자 1월1기蒌류어동청소년재단
122571기 인천광역시 동구 바른교실
가톨릭 청소년센터 4층
대표전화 032)706-1318, 1398
후원전화 032)706-7962
홈페이지 www.gimak.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gimak06
이메일 gimak@naver.com

CONTENTS

- 03 인사말_故구본영 신부님을 추모하며
(재)기쁨학교청소년재단 사무총장 이재학 신부
04 뉴스
재단사무처 및 운영시설 주요 소식
10 기획기사
청소년의자원봉사단 '꿈과 사랑 속으로'
12 이롭나
안재희 후원회원 인터뷰
14 후원안내
후원 신청 및 후원금 사용 안내
16 홈페이지 안내
개편된 홈페이지 사용 안내
17 후원회원 명단
청소년과의 아름다운 동행



재단사무처·연구소 주요소식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재단의 노력은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2018년 청소년활동진흥원사업 제작

우리 재단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년 'thon과 사랑 속으로' 협력연대지원봉사단의 주관단체로 선정되어 7월 28일(토)부터 8월 6일(월)까지 8박 10일 필리핀 바기오시로 총 28명의 봉사단을 파견 했습니다. 이번 봉사단은 바기오시 내 푸록 17(Purok 17) 지역의 아동보육시설의 보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위생 및 미술교육 등 활동도 했습니다. 더불어 한국문 환경부스 및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과 문화교류시간을 가졌고, 바자회를 열어 기부 받은 한국 물품을 지원한 가운데 현지 주민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수혜지역인 Pangasinan에 바기오교구 하리마스회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2018년 청소년문화예술창작제 출판제작

- 꿈을찾아 & 청소년전래밴드축제 &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대축제

우리 재단 서포터즈는 8월 19일(일) 청소년전래밴드축제, 9월 9일(토) 꿈을찾아면 수구천 한마음광장, 10월 27일(토)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대축제(송도센트럴파크)에 참여하여 서포터즈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흥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재단과 서포터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출보와 더불어 다양한 게임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다양한 기발한 청소년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청소년의 주도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以 외교자 제4회 청소년프로그램공모전 '맑음'을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시내구상원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증진 및 청소년 스스로 자기경험을 할 수 있는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시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시류상사와 일로상사를 거쳐 최종 3팀이 선발되었습니다. 입선에는 연금률 외 6명(LOVE YOUTH), 우수상에는 이은지 외 1명(은지원), 대상에는 조문희 외 3명(그루터기)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전 '맑음'은 청소년을 사랑하는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2018 청소년문화예술창작제 출판제작 제작

12월 16일(일) 사무처 뮤비터에서 재단 11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직접 기획한 청소년 이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감수성'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에 대해 나누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과 운영위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평등 감수성을 키우고, 청소년으로서 청소년 이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재단 전 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단사무처·연구소 주요소식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재단의 노력은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 & 맑은꿈벌총체

6월 9일(토)부터 10일(일)까지 이를간 청파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불현미었습니다. 미사는 재단 소속 신부님들께서 집전해주었으며 재단이 하고 있는 일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상황을 알리드리고 청소년들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렸습니다. 더불어 9일 미사 전에 '맑은꿈벌총체' 체험 활동 부스 운영을 통해 재단과 운영사설에 대한 소개와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미사를 통해 청소년과의 이른다운 통행에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전례직원교육

가톨릭청소년센터 314호에서 6월 12일(토), 19일(토), 21일(일) 세 차례에 걸쳐 재단직원 180명을 대상으로 전례직원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례직원교육은 사람의 7가지 감정 중 두려움, 생각, 분노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및 밟아기제 성질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감성과 조절하는 법법을 살피며 청소년들을 만나는 직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설레시오수도회 청소년 사역대리 감상을 베드로 신부님에서 '감정을 밟아기'라는 주제로 진행해주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감정을 바라봄과 더불어 청소년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제성모병원과 의료지원 협약 체결

우리 재단과 가톨릭관동대학교제성모병원이 6월 26일(화) 재단 청소년들의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재단의 유영숙 사무처장님과 사무처 직원들, 국제성모병원 남상현 부원장 신무현, 사회사업팀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재단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제성모병원의 의료지원 아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예방접종,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 등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료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8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참여예산학교

7월 24(화)로부터 30일(월)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참여예산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 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개념강의, 인천교육, 공동체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인천교육'을 주제로 모둠별 토론을 통해 경제·재민·환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의 직접적 대상인 청소년들이 참여해 더 의미가 있었던 이번 청학 재단은 30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직접 담당 주무관들에게 발표함으로써 실질적 예산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운영시설 주요소식

많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재단의 노력은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충구청소년지원센터 끌드림

‘꿈! 희망! 프로젝트 공예로 말하다’ 전시회 개최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프로그램>
인천광역시 충구청소년지원센터 끌드림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철미도 ‘가에다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손수 만든 꿈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 작품은 자기개발프로그램 ‘꿈드림 공예교실’을 통해 4월부터 10월까지 17회기 35시간 동안 제작되었습니다. ‘꿈드림 공예교실’에는 총 7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5명의 청소년이 자기개발 성과 및 한국공예예술가협회에서 인증하는 공예자격증 취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수구청소년마을축제 ‘꿈틀장터’ 참여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학교폭력예방 리더도래상담 연합회는 9월 8일 연수구청 한아름광장에서 제2회 연수구청소년마을축제인 ‘꿈틀장터’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누공예체험, 학교폭력관련 위즈, 퀄리그라미를 이용한 학교폭력예방 문구 만들기, 걸거리 학교폭력예방 판매인 등으로 참여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도래상담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연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노력의 결실~ 감정고시 합격!

연수구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8월 8일 2016년 제2회 감정고시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각자 기간은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센터에서 일대일 면토,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충족 또는 고를 학력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학습을 도와주었고, 응시 당일에는 성심 도시락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을 응원하였습니다. 2회 감정고시에 응시한 35명의 청소년들 중 전체 26명, 무려 9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별사탈

쉼터 개소 5주년 기념 행사 진행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에서는 습지 개소 5주년 기념행사를 10월 26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부천 남부역 진디길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할로윈 분장 체험, 상담부스, 모珉 청소년과 활동가 모임 등으로 통해서 청소년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짓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시흥시여자만기청소년쉼터

재 위탁관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실시

시흥시여자만기청소년쉼터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AI총시와 우리재단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9월 28일 시흥시청에서 실시된 이번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 사업 경과 및 계획에 대한 실무자 발표, 질의응답 등의 과정이 있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재위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재단이 시흥시의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 가게 되었습니다.



운영시설 주요소식

많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재단의 노력은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합 캠페인 및 보고대회
인천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11월 24일에 CGV 인천점과 구월동 일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합 캠페인 및 보고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부 보고대회에서는 초중등학생 및 지도교사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 등 한 해 동안 수고한 또래상담자를 격려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2부에는 학교폭력 근절의 주제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하반기 대학입시설명회

인천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끌드림에서는 8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및 보호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설무자를 대상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서울여성 불리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전문상을 갖춘 한국대학육합협의회 및 한국전연대학교육협의회와 연계하여 4년제 · 전문대학 입시설명 및 1:1 맞춤형 입시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상달·멘토지원단 발대식

개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월 15일 「1388청소년지원단 상달·멘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개인구 도래상담연합회 또래상담자 39명, Y.C.C대학생상담동아리 8명, 전문상담자봉사단봉사자 1명으로 구성된 상달·멘토지원단 총 46명에게 인천광역시 개인구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 1388청소년지원단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개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선물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

개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4월부터 8월까지 총 24회기에 걸쳐 학교밖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작자·작곡·자기개발 「Become a Star : 우리들의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풍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문화기획사 몽스터프렌즈와 연계하여 진행한 몬스터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자·작곡 활동에 참여하여 노래로 감정 표현하기, 스트레스 해소, 실물문화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 등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참여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작자·작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워크샵, 버스킹, 지역문화 촉진장비 등의 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 능력 및 협동성 향상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충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8년 학교폭력예방 거리캠페인

충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8월 25일 동인천역 일대에서 학교폭력예방 거리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거리캠페인은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동인천역 일대 거리를 외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충주경찰서와 함께하여 ‘멈춰송’에 맞춘 음악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시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폭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영시설 주요소식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계단의 노력은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2018 여름산양학교 '실종 다시 만난 세계'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에서는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8차례에 걸쳐 초등부, 중고 등부 여름산양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85개 본당에서 3,000여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가하였으며, 세대경선의 해를 맞이하여 '실종 다시 만난 세계'라는 주제로 세대경선의 의미와 전래 행위들을 되짚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과 사랑의 은총, 그에 따른 사명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 만드는 연수구 마을축제 '꿈틀장터'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연수구 마을축제 '꿈틀장터'가 9월 8일 연수구청 한 마을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 300명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였으며 지역 중·고등학교 17개교, 학부모 15개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꿈틀장터는 과학관, 흰공준, 진로체험존 등 테마별 체험부스로 구성되었고 꿈틀카페, 꿈틀공연을 통하여 어거리고 불러라 등 디자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꿈틀장터를 통해 '마음'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끼고 청소년과 다른 세대들이 모두 마음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진로가 필요할 땐 언제나, '우리동네 드림팀'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통하여 긴장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 친선을 발굴하고 연계하며, 유관기관과 진로 프로그램 및 인력과 지원을 하는 직업체험연계사업인 「우리동네 드림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까지 약 1,200명의 청소년들과 만나 지역 내 자원봉사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맞춤식 진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제4회 시흥시청소년동아리축제' 성황리에 종료

시흥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10월 27일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동아리 활동을 축상화하고, 국내 청소년동아리와 지역사회 소통·교류·협력의장을 마련하고자 시흥시 갤러리아공연장에서 2018년 제4회 시흥시청소년동아리축제 「꿈, 하려는 대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동아리축제는 296개 동아리 약 4,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였으며, 행사장을 방문한 관객 포함 1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전국 최대 동아리축제의 규모를 노릴 수 있었습니다.

인천진로교육센터

제1회 진로교육 포럼 「미래지향적 진로교육에 대한 새로운 상상 그리고 실천」 개최
인천진로교육센터는 10월 18일 「미래지향적 진로교육에 대한 새로운 상상 그리고 실천」이라는 주제로 제1회 진로교育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진로교육포럼은 주제 및 사회발표, 라운드리테이블 미팅으로 운영되었으며, 교사,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진로체험지원센터 종사자, 직업인 연트 등 청소년 진로교육 관계자 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진로교육 포럼은 진로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지역 진로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발전적 사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능의의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시설 주요소식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계단의 노력은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쉼터 꿈꾸는별

청소년이 안전한 해변 만들기, 해변거리상담 '바다위의 별을 찾아 See-See'

인천광역시청소년쉼터 꿈꾸는별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6박 7일간 인천광역시 중구 물류리해수욕장에서 해변거리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위기 및 응급상황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진행하고,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교육 및 캐어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2018 해변거리상담은 우리 계단에서 주최하며, 계단의 여러 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해변거리상담은 8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으며, 함께 연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별마루

현재 문화의 부산과 과거 문화의 김해를 만나다

인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별마루 청소년들은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김해에 있는 가야문화마마코에서 왕궁과 마을을 돌아보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의 기념관에 발문았으며, 부산의 부도 전망대, 통일성 달대를 누비며 일상을 벗어나 과거와 현재를 체험하는 데에 이루 말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과 김해지역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리가

위기청소년 대상 주거지원사업 실시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7월부터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비스대상자는 만 18세부터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고시원이나 고시원 등을 주거지원을 받게 됩니다. 주후 주거지원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전세임대주택이나 청탁주제 등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동산, 경제교육, 직장에 필요한 교육, 인생교育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혼란도 진행됩니다. 현재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총 7명이며, 이 중에 1명은 행복주택에 선정되어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원은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동경터를 가진 위기청소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사람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작업장

청소년 바리스타 직업체험 실시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작업장에서는 9월 4일 학교밖청소년자립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리스타 관련 이론 및 기술 교육과 커피주조 체험을 통해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빠른 청소년에게 가능하도록 중기부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8년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청소년연구소 '맑음'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2018년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사업을 주관·운영하였습니다. 재단에서 그간 진행해 온 활동을 바탕으로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청교화하고, 청소년의 주도적인 봉사 활동 기회 및 준비과정의 의미를 강화하였으며, 무엇보다 현지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필리핀 바기오(Baguio)현지에서 바기오 시, DSWD, 성 이시콜학교 등과 협력하여 가치 있는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인력은 총 28명이었으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부와 후원을 통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건물 수수께끼 성형과 함께 방수 작업을 꿈
공장에 힘드, 올상 정수사업과 치중 구축사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판교트리 작업 베란드 위장을 위해 단기 봉사
지 팀과의 눈물을 살피며 청소년들이 열정적 차별화
했습니다.



● 청소년의 인연을 네네 학교에서, 민족보전재단
의 간호사 선생님은 현지 주민들에게 간단한 치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 문희고류의 장에서 그간 관습에 본 대관우, 일의
쁜 편지통과, 음반단 공연에 이어 부세홀까지 신보
코입니다.



● 사전구호활동으로 모인 기본물품을 가지고
Dean 자리에서 비자와 함께 아동 주민들이 혹은
봉관을 지원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바자회 수익금으로는 현지 카페스토리를 통해,
대량 티셔츠로 일자리를 수여하여 passenger에 간
급구호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의 따뜻함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 역시 따뜻한 미소의 함께 우리에게 감사함을 전했을 때, 사람이 사람을 돋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임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그들의 감사함을 통해 우리와 마음속에积淀되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재능이나 희망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돋는 것이 봉사인 줄 알았는데, 나의 재능과 희망은 아니라 누군가를 돋고 싶다는 번처 일을 따뜻한 아동에게 가진 데로 봉사를 통해 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실현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을로부터 따뜻한 감사장을 받는 것,

봉사자들도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 맑기 청소년 소감문 중에서 -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2018년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우수 기관 선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꿈꾸는 별, 세계 속으로 into the World! Dreaming Star in 필리핀 바기오



<꿈꾸는 별, 세계 속으로> 주요 활동



● 2018년 필리핀 사전교육과 업무원 준비를 끝내고,
총 29명이 현지로 바기오로 파견되었습니다.



● Baguio 시에서 거리에 환경을 환경, Welcome
Community의 조찬행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 Punk 17-day care center를 개선하는 노후화시설
개선센터 건립장성이 미흡주변으로 함께 했습니다.



● 고목봉사를 통해서 현지 아동들에게 위생교육,
마술활동자체활동, 그리고 과학, 미술장을 놀이 활
동을 함께했습니다.



● 현지 대형 스포츠장에서 친목교류 퍼포먼스를
합니다. 꽃놀이, 헬리콥터, 전통문화 체험의 주제로
전통문화 탐방, 퍼포먼스, 그리고 청소년들은 현지
문화를 통해 한국을 알아
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바기오 시전체도 문희고류에 참여해 시장을 찾
어주었고, 필리핀 친구들도 전통공연으로 함께 했습니다.



● 새롭게 단장한 Punk 17-day care center 현장
을 마음 주변에 향해 했습니다. 강물 희박부서
내부 백년 주방, 화장실, 옥상 등을 부분이 새롭고
희사용 punk 17-day care center에서 뒷모로드
마을 주민들과 그 지역의 아이들이 놀고
새로운 꿈을 구하며 살아갈 소원합니다.

청소년연구소 '맑음' 저널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영상



만재희 후원회원님

많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재단의 노력은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Q 청소년들을 위해 제세동기를 후원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까요?

A.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에 제세동기의 같은 안전 구호 장비가 없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사용할 일이 없어야겠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이나 만큼, 물급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지만 설치하지 못한 청소년 시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 시설에 제세동기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고 든든한 물타리가 되어 줄테니,

"서둘마 자유롭고, 멋지고,
당당하게 서로 도우며 기쁜
나눔 사랑 전파해 살아가자!"

ENKO



Q 후원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A. 광소에 '뮤니세프', '가톨릭 비타fon' 등 다양한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 사업가로서 '나눔의 김'에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하고 있답니다. 더불어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지난 9월에는 성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간수 사건을 플랫폼 드렸답니다. 이렇게 후원이나 봉사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주변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민들과 함께 있었던 100세 연세대 교수님의 인문학 강연 등의 영향으로 차면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기업인으로서 이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나눔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되었어요. 후원의 기쁨을 많이 달리 고자 거론은 아니리라 주변 자민들에게도 이런 나눔 활동들을 많이 권유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주변 친인척 제세동기 후원에 함께할 것을 권유 드렸더니 기꺼이 동참해 주셔서 3대를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작은 후원이 모여서 큰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후원에 동참하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어른들이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고 든든한 물타리가 되어 줄테니, "서둘마 자유롭고, 멋지고, 당당하게 서로 도우며 기쁘게 헌느님 서방 안에서 살아가자!"

현재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은 많은 것들 강요하고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타카운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강요와 압박으로 청소년들을 짓누르지 않도록 그대로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데우리 밖에 있는 소외된 청소년들의 손을 감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회의 데우리 안에서 헌느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들은 그 안에서 누구보다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99연고를 운영하고 있는 만재희입니다. 현재 글로벌 회사의 한국 대리점으로 환경, 소방안전, 의료 등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방관들이 함께 시민권을 위해 작품하는 소방축, 공기호흡기 등을 제공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장갑 등 필요한 소모품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특별히 저희 재단에 후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서창동성당에서 축 고등부 교리교사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청소년들이 '교회의 아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밤시계도와 학원에 최근 일상마지막 놀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청소년, 어떤 이유로든 서도진 교육을 빛어내 방황하려면 그런해도 자신을 찾이가는 학교 및 청소년들을 도울수 있는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허용되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돋는 기관에 후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민을 통해 인연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가톨릭어동청소년재단을 알게 되어 의사 를 전달하고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원금 사용안내

보내주신 후원회원님의 소중한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아동·청소년의 육성사업, 구호 및 장학사업, 해외자선사업 등에 사용되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 공시
(npoinfo.hometax.go.kr),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확인, 주무관청 감사 지도점검 등을 통해 성실히 투명하게
집행·관리되고 있습니다.

월	기부금액	보호육성사업비	운영비	기부금액
1~6월	260,504,018	보호육성사업비 144,272,130	운영비 23,433,005	167,795,155
7월	42,980,000	보호육성사업비 28,859,182	운영비 4,534,841	53,194,000
8월	41,985,000	보호육성사업비 15,426,110	운영비 4,228,219	19,754,329
9월	26,252,816	보호육성사업비 20,796,380	운영비 4,255,433	25,011,795
10월	66,248,805	보호육성사업비 38,208,510	운영비 14,309,520	52,578,030
11월	43,222,000	보호육성사업비 30,414,692	운영비 6,666,217	37,080,879
	481,192,638	보호육성사업비 207,795,564	운영비 57,627,235	355,324,189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01 발급안내_(제)가족력아동청소년재단에서는 후원회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2018년 후원 내역이 있는 후원회원님

발급기준: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부내역

발급시기: 2019년 1월 10일 전후

발급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한 확인 및 자동 발급

- 홈페이지 후원페이지 접속을 통한 확인 및 발급(2017년 11월 이후 신규 후원회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기존의 기부금영수증 일괄 무면 발송이 어렵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서는 재단 사무처로 연락해주세요.

02 영수증 관련 문의_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문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영의를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영의를 변경해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신청 시 등록한 후원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사실과 다른 계좌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소득공제액이 1억원이 이하이며, 기본공세대상으로 등록되는 배우자, 리거비속, 학제경속 및 형제자매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에 기부한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재단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 공제 (2,000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기업) 후원회원의 경우 소득의 10% 손해산정

연말정산을 위해 기관 서류가 필요한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제출 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전화 주시면 맥스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청소년이 지난 가능성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회원 안내

01 청소년을 위해 신청해주신 후원금이 잘 출금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정기후원(CMS)의 경우 자동이체 일자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계출금 시도(2회)가 되며, 6개월 이상 계출금이 실패되면 후원 종결로 간주되오니 자동이체 일자에 맞춰 확인 부탁드립니다.

02 후원회원님의 소중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후원회원님께 저희 재단의 소식지(면 2회)와 부활대축일과 성탄대축일에 이사장님의 메시지가 담긴 축하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경제정보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단으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방법

01 정기후원_후원회원님의 은행계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이 자동이체 되는 방법입니다.



서면신청

후원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 사무처에 제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재단 홈페이지(www.yism.or.kr)
접속 후 우측 상단의 '후원참여
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유선신청

재단 사무처(032-766-7942)로
연락주세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후원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02 일시후원_후원회원님께서 직접 재단의 후원금계좌로 입금해주시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재단 후원금계좌로 이체 > 입금 후 확인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한 100-024-226501 ● 국민 651001-01-292719 ● 농협 147-01-214064 ● 우리 1005-001-494596

03 기타후원_기업/단체/그룹/재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는 후원회원님은 언제든 재단으로 연락주세요.(032-766-7942)

"청소년이 지난 가능성을 후원해주세요."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페이지 개편



[제3기]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의 홈페이지(www.yism.or.kr)가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총권회원님께서 보다 편리하게 재단 후원 및 협동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부금 영수증 온라인 출력 및 후원회원님의 개인정보 변경
후원신청, 후원내역 확인 등이 가능한 태그를 구축하였습니다.

원의 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세부 제 조항을

2017년 11월 이후의 신규회원회원님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회원회원분들은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거나 아래와는

• 그 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바랍니다.

(■032-756-794

앞으로도 청소년 및 후원회원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새롭게 개면하고자 합니다.



音量调节

남동지구 청년연합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남동구청 청년연합회에서 9월 30일 진행한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단행행사인
‘하누카’ 수익금 112만원을 위기청소년들을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구호금으로 소중히 사용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지수에서
3,000,000원을
제3자 후원해주세요!

국민은행 혼인준비금에서
2,000,000원을 계좌에
转入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1,000,000원을 재산에
후원하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 코마설날
대한민국 전소매에서
1,000,000장을 차지합니다.